http://dx.doi.org/10.14400/JDC.2016.14.8.407

# 민화 '모란' 의 언어학적 상징요소 재해석을 통한 디지털 주얼리 디자인 연구

이지원, 나건
홍익대학교

# A study on digital jewelry design through reinterpretation of symbolic element of Peony flower in Minwha with Linguistic analysis

**Ji-Won Lee, Ken Nah**
**Dept. of Design Studies, Hongik University, IDAS**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문화 콘텐츠인 민화의 도상을 통한 상징체계는 근원적인 우리의 조상들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의 표현이고, 의사소통의 방법이었으며, 이는 현대에서도 새로운 매체와 더불어 전승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임을 논의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언어학적 분석을 토대로 보편적 소망을 담은 민화 도상중 하나인 모란의 상징 내용에 디지털 매체를 통한 주얼리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현대적 주얼리 디자인을 하였다. 분석을 통한 결과물로서 모란 도상의 보편적 소망인 부귀와 명예의 내용을 담은 Blossom 과 함박웃음을 주제로 현대의 최신 기술들을 접목하여 3D 디지털 도구를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 및 변형 과정을 보여 주었으며,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3D 프린팅 방식과 레이져 커팅 방식을 통해 민화의 상징체계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유연한 사고를 접목하여 형상화 하였다.

**주제어** : 민화, 모란, 상징체계, 주얼리, 3D 디지털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to discuss for Korean cultural contents; symbol structure of Minwha painting which not only expresses openness, flexible expression and methods of communication of our ancestors but also possibly passes down as precious cultural heritage to modern society with new developed mediums. From this perspectives, as a method of research, modern jewelry design is created through digital process with linguistics analysis of its symbol structure that contains universal wishes of people. As a result, this research showed jewelry design and design process, titled "Blossom" and "Big Smile" grafting modern technology of 3D digital tool onto universal meaning symbolized by Peony flower, wealth and honor, and also grafted modern manufacturing methods of 3D printing and laser cut onto openness and flexible thinking in symbol structure in Minwha.

**Key Words :** Minwha, Peony, Symbol structure, Jewelry, 3D Digital

Received 5 June 2016, Revised 4 July 2016
Accepted 20 August 2016, Published 28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Ji-Won Lee (Hongik University, IDAS)
Email: jiwon.lee1@idas.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고유의 그림인 민화와 민화 도안 중에서도 우리 문화 곳곳에 폭넓게 쓰이고 있는 '모란' 도상을 을 현대 주얼리로 재해석하여 표현 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의 고유한 사상과 민화의 상징체계와 모란의 상징요소를 분석을 통하여  모란 속에 담긴 선조들의 사상과 유연성, 개방성을 현대의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재조명 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민화라는 콘텐츠가 지닌 체계적이고 유연한 소통 내용을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주얼리 작품에 담아 현대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탄생 시켜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 소망을 담고 있는 민화와 그 속의 도상이 시대를 넘어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유쾌하며 희망적이었던 훌륭한 선조들의 생각과 내용들을 디지털로 디자인 된 주얼리를 통해 논의해 보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우선 민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문헌 조사를 통해 정의해 보고, 민화 중 '모란' 도상을 통해 상징과 상징체계에 대해 언어학적인 분석을 해 볼 것이다. 분석을 통해 '모란' 도상이 당시에 의미적, 형태적으로 어떻게 통용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를 디지털 시대의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 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주얼리라는 작품을 통해 과거와 비교하여 현대에 의미적, 형태적으로 어떤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는 지를 작품을 통해서 보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상징요소와 상징체계의 분석에 집중한 용이한 설명을 위해 민화의 다양한 도상 중 '모란' 도상을 임의로 선택하여 논의 하였다. 언어학적 분석은 구조주의 언어학자 소쉬르의 기표-기의 이론을 바탕으로 상징과 상징체계에 대해 형태적, 의미적 범위에서 분석하였다.

# 2. 본론

## 2.1 민화란

민화란 다양한 상징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미지이다. 특히 상징의 메시지는 주로 자식을 많이 낳고 출세를 하며 행복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가득 들어가 있다[1]. 이렇게 복과 소망을 바라는 그림을 길상화라고 한다. 길상화는 조선 후기에 궁중에서 널리 쓰였다.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의례 때마다 여러 종류의 길상화를 제작하여 행사를 빛나게 했다. 이러한 궁중의 길상화는 19세기에 민화 길상화로 확대 되었다[2]. 즉 길상화를 쓰고 그리는 계층적 범위가 왕, 사대부로부터 민간에 까지 확산된 것이다. 또한 의례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식기, 수저, 가구, 이불, 의복 등 일상생활의 전반과 궁궐 건축장식, 사찰 장식등 그 시대의 삶과 그야말로 동거 동락한 그림이었다. 정옥자의 조선후기 중인문화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민화의 확산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해 해 볼 때 하층계층의 상층 문화에 대한 동경과 모방의식의 발로이자 동시에 문화의 하향적 확산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도 있다[3]. 서울대박물관 학예관의 진준현은 우리 민화의 아름다움과 특징 및 그 의의에서 민화의 정의를 " 왕공이나 사대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국민이 그리고 사용하던 회화로써, 순수 감상용이 아닌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려진 작가미상의 그림"이라고 넓은 의미로 민화를 정의하고 있다[4]. 여기서 본 연구자는 민화의 실용적 목적과 민화 그림 이용 대상이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그리고 사용하는'라는 개방적인 사상과 긍정적인 소망을 함의 하는 이미지의 상징성이 민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즉, 민화는 어떠한 사용 목적 가진 대상에 누구나 그 대상에 소망을 담는 상징의 이미지를 그려서 소망을 함의케 한 것이다. 물론 십장생도는 장수를 상징하고, 모란이 부귀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연시 통용 되었던 민화 도상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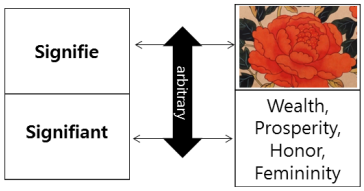
## 2.2 상징과 민화 상징도상  '모란' 의 언어학적 분석

앞서 민화에 대한 내용을 통해 민화는 도상을 통해 상징의 의미를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민화 속 도상은 하나하나가 상징이자 기호이며 언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라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 자의성으로써 주관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시간 등 관습적 기반을 통해 형성 되는 것인데, 민화의 도상도 상징요소로서 사회 속

관습적 가치의 한 형태로 형성 된 것으로 이해 해 볼 수 있다. 상징은 결국 '그것은 이런 의미다.' 라는 공동체 내부의 약속이며, 그 공동체의 의식구조를 알 수 있는 단초이다[5]. 일반적으로 상징이 예술 장르에서 많이 사용 되는데, 이는 예술이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것 이상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상징은 감각적으로 표현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감각적 대상(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상징은 보편적인 것, 신비한 것, 볼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떠한 표현 대상을 통해 반영하여 보여준다[6].

민화의 다양한 상징 도상 중 모란은 민화의 다양한 상징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민화를 그림으로써 모란의 상징요소는 상징체계를 가지게 된다.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민화를 그리는 체계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 해주고, 민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화의 상징과 상징체계는 하나의 언어로서 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해 논의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쉬르(Saussure)가 도입한 기표-기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적 기호에 있어서 기표(단어의 소리)는 청각적인 형태로서 용어 사이에서의 차이를 말하며, 기의(의미되는 내용)는 용어에 의해 의미되는 개념을 말한다. 전자는 기호형태이고 후자는 기호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호는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의적인 특성을 갖는다[7]. 즉 [Fig. 1]과같이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이며 고유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약속이나 관습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민화의 상징요소인 모란은 기표(상징으로 나타난 형태)가 되며, 기의(의미되는 내용, 상징내용)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A relation between Signifiant and Signifie theory and symbolic element of Moran

의미적으로 본다면 모란의 상징적 의미는 윤열수의 Korean Art Book에 따르면 삼월과 봄을 나타내며, 부귀와 명예, 부부애, 여성미, 번영 등을 상징한다고 한다[8]. 모란은 꽃 중의 왕으로 인식 되어 그 화려함이 부귀를 상징이었다[9].모란은 주로 병풍에 그려져 옛날 신부집 마당의 초례청과 신혼방, 대갓집 마나님의 안방과 대청마루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비단바탕에 수를 놓기도 하였으며, 때론 무속과 관련된 그림에서도 많이 등장한다[10]. 이렇듯 모란은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부귀라는 보편적 소망을 담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의 내용은 과거로부터 이미지나 형상으로 표현된 소망은 주술적 민간신앙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승화되며 위안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왔다[11]. 모란만 단일 상징 요소로 쓰이기도 하지만, 모란이라는 상징 요소에 만고불변의 장생물인 괴석을 더하여 부귀장년(富貴長年)의 내용을 전하기도 하고, 괴석을 남성, 모란을 여성으로 상징하여 부부화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민화에서의 모란의 도상은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소망을 상징하면서 소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징체계로서의 민화는 누가 그렸던 간에 같은 의미를 쉽게 전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한번 익숙해진 상징체계는 머릿속에 각인 된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글자 '나무'가 시대가 지나도 쭉 뻗은 단단한 밑 둥과 잎사귀가 있는 모습의 대상을 의미하듯, 모란도상의 상징은 그들의 소망을 의미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1〉 Various shape of Moran(Peony flower) pattern

| Painting of Peonies and boys, Museum of Gahae | Painting of Peonies |
|---|---|
| | |
| Round Fan for Weeding Ceremony, Museum of Gyemyoung University | Painting of Flowers and Bird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 | |

형태적으로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기표로서의 상징 요소는 자유분방함이 있었다. 민화가 온 국민이 향유

했던 그림이었다는 것에서 민화의 그림과 도안을 그렸던 무명 화가들은 그림의 요청이 들어오면 소망에 따라 상징 요소의 배치를 통해 자유롭게 그려주기도 하였고, 필사를 통해 베껴서 그려주기도 하였다[12]. 즉 모란의 모양이 누가 그리냐에 따라 모양은 다를 수도. 똑같은 모양이 유통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Table 1>과 같이 그 모양이 조금 우스꽝스럽든 어떠하든 모란도상은 부귀와 번영을 상징하였을 것이고, 모란도상으로 받아 들었을 것이다. 또 이 도상은 생활 곳곳에 장식적으로 혹은 생필품을 위해 쓰였을 것이다. 때론 수를 놓아서, 때론 그림으로, 조각으로 표현의 형태도 다양했을 것이고, 때론 의복에, 장신구에, 그릇에, 가구에 다양한 소재의 도상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모란 도상의 형태를 통해 민화의 개방성과 유통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 2.3 민화 '모란' 상징요소의 현대적 재해석

민화의 상징요소 중 하나인 모란에 대해 형태론, 의미론적으로 현대적 재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앞서 민화는 상징체계로서 모란은 상징 요소로서 사용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의미적으로는 행복과 부귀영화, 명예를 상징하고 있으며, 형태적으로는 다소 형태가 변화되거나 바뀌고 수정 되더라도 의미의 전달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유통되고 사용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민화가 등장했던 조선 후기에 민화의 그림과 도상을 통해 개방적이고 유연했던 국민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무명 화가가, 화가가 그려주고 직접 전달 해 주던 시대에서, 현대는 인터넷의 보편화와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그릴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으며, 클릭 한번으로 전송 해 줄 수 도 있다. 그리고 전송된 디지털 매체는 때론 나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첨가하여 나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3D 프린트나 레이저 커팅을 통해 출력이 가능하다. 생각해 보면 현대의 기술이 발달하고 변하였을 지라도, 디지털 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민화처럼, 리고 민화의 상징 요소인 모란처럼 말이다. 시대적 문화적 환경 아래, 디지털 파일은 민화의 도상처럼 새로운 상징 요소로 어쩌면 우리의 실생활 여기저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현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입해 보는 데에 무리함이 없어 보인다. <Table 2>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현대에 적용하여 재 해석 해 본 것이다.

〈Table 2〉 Reinterpretation of Moran(Peony flower)

| Theory | Symbolic Structure | Distribution of Painting | Modern Reinterpretation |
|---|---|---|---|
| Signifie | | Painting is painted by Unknown painter or painter and deliver to customer | Various methods of presenting the printing using 3D software. Wide distribution through internet. |
| Signifiant | Wealth, Prosperity, Honor, Femininity | The contents have customer's wishes and it is understood at common law. | The contents have customer's wishes and it is understood at common law. |

정리하자면, 모란의 상징요소를 현대적 재해석은 소쉬르의 기표-기의 이론에 대치 시켜 보면, 모란의 상징요소는 형태적으로 즉 나타난 표상인 기표로 이미지의 도상을 디지털 파일로의 확장하여 나타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누가 나타 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랐던 모란도상도 하나의 상징 기호로서 역할을 했으니 말이다. 의미적으로는 기의에 해당하는 모란의 기본적인 상징내용인 행복, 부귀영화, 명예의 내용은 사회 관습적으로 굳혀진 내용이고, 보편적으로 긍정적이고 누구나 희망하고 소망하는 내용의 상징의미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굳이 변화지 않아도 될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거나 만드는 형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모란을 통한 새로운 의사소통도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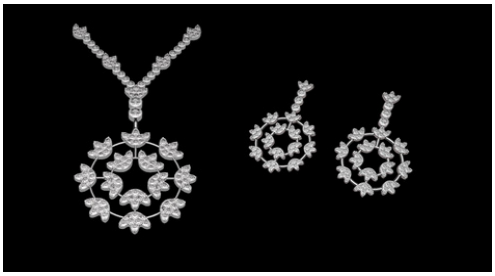
### 2.4 디지털 매체를 통한 현대적 주얼리 형상화

앞서 민화의 개념에 대한 정리에서 왕공이나 사대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국민이 그리고 사용하던 회화로써, 순수 감상용이 아닌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려진 작가미상의 그림이라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감상용이 아닌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민화 도상의 상징요소를 이용하여 현대에 맞는 주얼리 작품을 디자인 해보고자 한다. 주얼리는 신체 장신구라는 목적이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모란 도상에 대한 앞선 연구와 언어학적 관점으로의 분석을 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사회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면서, 의미론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민화의 상징체계와 모란 도상이 가진 상징 요소와의 관계를 주얼리라는 작품으로 나타 내어 보자 한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의 의사소통과 민화를 통한 근원적인 우리의 조상들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이 현대에서도 변치 않는 소중하고 우수했던 본연적 사상이었음을 연구자로서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화 모란의 형태론적인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모란도상을 표현 한 주얼리 디자인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 수정 및 변화된 작품을 형상화 해 볼 것이다. 이는 민화의 상징체계와 모란의 상징 요소를 통해 현대적 관점에서 유통, 사상, 요소등의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2.4.1 형상화 – Bloss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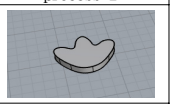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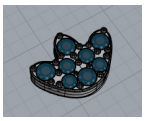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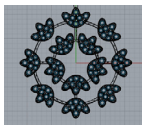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의미적,형태적으로 재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모란꽃의 잎을 하나의 모티브로 잡고, 꽃잎이 하나하나 모여서 한 송이의 모란꽃을 탄생시키는 형상화를 통해, 정성어린 작은 소망과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송이의 모란꽃을 피울 때 부귀가 되며 명예가 된다는 소망을 [Fig. 2]와 같이 주얼리를 통해 형상화 해 보았다.



[Fig. 2] Outcome, “Blossom”

이를 위해 <Table 3>과 같은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사용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Rhino Ceros 5.0을 사용하였다. Rhino Ceros는 제약 없는 자유 모델 3D 소프트웨어로서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 변형이 가능하다[13]. 또한 이와 같은 3D 소프트웨어는 수작업 보다 정확한 치수로 디자인 도면을 만드는 동시에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15].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디지털 3D 소프트웨어인 Rhino Ceros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란 잎 하나를 상징 요소로서 커브를 이용한 모티브를 형성 하였다. 이는 때때로 민화는 밑그림의 변형이나 수정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으로 탄생하는 것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Blossom의 형상화는 모란 잎 하나가 하나의 작은 부귀의 상징 요소로서 사용 되었고, 형태적으로 3dm의 디지털 매체 형태로 표현 되었다. 표현된 작품은 3D 파일만 있다면 추후 3D 프린터나 주얼리 RP장비를 사용하여 어느 누구나 원할 때 생산이 가능 할 것이다. 3D프린팅은 만들고자 하는 형상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3D로 모델링하고 프린터로 전송하여 적층 과정을 통해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16]. 3D 프린터는 장비와 파일만 있으면 누구나 출력하여 제품을 완성 시킬 수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자의 소망을 담은 모란 잎의 상징 요소 자체도 디지털 파일로 저장 되어 유통이 된다면, 다양하게 수정 및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모란 주얼리를 탄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형상화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Table 3〉 Digital design process of “Blossom”

| Symbol Motif | Saving | Design Transforming process 1 |
|---|---|---|
| | Saving to 3 dm. file |  |
| Design Transforming process 2 | Design Transforming process 3 | Saving Final File |
|  |  | 3D Print out after removing gemstones-> After that, setiing gemstones on the jewelry |

### 2.4.2 형상화 – 함박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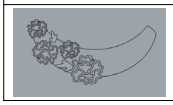
다음은 [Fig. 3]으로 본 연구자가 모란 도상에서 상징 모티브로 선정한 모티브를 다른 방법으로 변형 한 것이다. 상징 모티브를 이용하여 크고 작은 모란꽃을 블랙의 아크릴에 음각, 양각으로 표현 하였다. 이는 어딘가 모른 곳에 있는 부귀영화의 함박웃음을 모던하게 그리고 음(陰)적인 요소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다시 자수를 통한 수공예 기법을 통해 빨갛고 분홍색의 생동감 있는 모란꽃을 양(陽,)적인 요소로 피어난 함박웃음을 매체의 혼용

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는 매체의 하이브리드화를 통한 민화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질감 없이 표현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화에서 비롯된 우리 선조들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형태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했고, 선조들의 음양의 사상을 모란의 부귀와 연관하여 의미론적으로 해석 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Fig. 3] Outcome, " Big Smile"

본 작품은 <Table 4>의 프로세스와 같이 디지털 툴인 라이노 5.0에서 만들어진 상징 모티브를 라이노 프로그램에서 변형 한 다음, 일러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레이저 커팅을 하였다. 레이저 커팅은 포커싱된 레이저 빔이 공작물에 조사되는 부위는 공작물이 용융 또는 증발할 정도로 가열되어, 공작물이 완전히 천공되면 절단 공정을 가지게 된다[17]. 따라서 표현된 작품은 상징 모티브만 있다면 얼마든지 모티브를 변형 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레이저 커팅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수로 표현된 부분을 다른 요소로 대체하여 표현 하여 다른 소망을 담은 주얼리로 표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형상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Table 4〉 Digital design process of "Big Smile"

| Symbol Motif | Saving | Transforming process 1 |
|---|---|---|
| | Saving to 3 dm. file | |
| Process 2 | File saving and Laser Cutting | Process 3 |
|  | | |

## 3. 결론

민화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삶과 그야말로 동거 동락한 그림이었다. 왕공이나 사대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국민이 그리고 사용하던 회화로써, 순수 감상용이 아닌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려진 작가미상의 그림으로 삶 속에서 주인 없이 누구나 소망을 담아 곁에 둔 긍정적이고 희망적 목적이 있는 도상이었다. 이렇듯 보편적 소망을 담은 그림은 도상들의 상징을 통해 전달되고 소통 되었다. 민화 속 도상은 하나하나가 상징이자 기호이며 언어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나 이번 연구에서 분석을 한 '모란'은 소쉬르의 기표-기의 이론으로 분석 해 보았을 때, 모란 도상은 기표(상징으로 나타난 형태)가 되며, 부귀, 명예 등의 기의(의미되는 내용, 상징내용)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태적으로 기표로서의 상징 요소는 자유분방함이 있었다. 민화의 그림과 도안을 그렸던 무명 화가들은 그림의 요청이 들어오면 소망에 따라 상징 요소의 배치를 통해 자유롭게 그려주기도 하였기에 다양한 모란의 도상과 배치형태의 그림이 탄생하였다. 이를 통해 선조들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이를 현대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주얼리의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로 재해석 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의미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담은 상징 내용은 사회 관습적으로 굳혀진 내용이고, 보편적으로 긍정적이고 누구나 희망하고 소망하는 내용의 상징의미이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충분히 통용 가능한 요소로 여겨졌다.

분석을 통한 결과물로서 Blossom 과 함박웃음을 주제로 현대의 최신 기술들을 접목하여 3D 디지털 도구를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 및 변형 과정을 보여 주었으며,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3D 프린팅 방식과 레이져 커팅 방식을 통해 민화의 상징체계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유연한 사고를 접목하여 형상화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 콘텐츠인 민화의 도상을 통한 상징체계는 근원적인 우리의 조상들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의 표현이고, 의사소통의 방법이었으며, 이는 시대는 흘렀지만, 현대에서도 새로운 매체를 통한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로도 전승 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임을 연구의 결과로 제시 해 볼 수 있었다.

## REFERENCES


[1] Busan Museum, “Praying for the Happiness- Korean Decorative Paintings”, pp6, Minjokmunwha, 2007

[2] Busan Museum, “Praying for the Happiness- Korean Decorative Paintings”, pp7, Minjokmunwha, 2007

[3] Jungok,Ja, “A Study on Middle people culture of Josun Dynasty” , pp72, Iljisa, 2003

[4] Junhyen Kim, “The Characteristics of Minwha and its beauty and meaning”, pp282-292, Sunmun University Museum, 2003

[5] Kiyoung Kim, “Fall in Love to Minwha”, pp138, Hyohyong Publish, 2010

[6] Mihakdeakyeakanhanghwe,“The problem and methods in esthetic”, pp300,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7]“Term Definition of Signifiant and Signifi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318&cid=42121&categoryId=42121. 2016. 05.10

[8] Yeolsu Yoon, “Korean Art Book -Minwha 2-”, pp830, Yeakyoung, 2005

[9] Huh Gyun, “Traditional Pattern”, pp 130, Deawonsa

[10] Yeolsu Yoon, “Korean Art Book -Minwha 1-”, pp206, Yeakyoung, 2005

[11] Sungjin Oh, Jungmi Ryu, “A study on symbolic research on the purpose of therapist meaning in Korea traditional pattern”,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 8, No. 3, 71-87, 2012.

[12] Kiyoung Kim, “Fall in Love to Minwha”, pp54, Hyohyong Publish, 2010

[13]DOI:https://www.rhino3d.com/kr/features. 2016.05.15.

[14] Jung-Soo Han, Gui-Jung Kim, "Virtual Constructions Design using 3ds Max",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4, p.274, 2013.

[15] Sang-Ho Han,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Digital Design by Three Dimensional Model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Vol. 10, No. 10, p.448-449, 2012.

[16] Hyeon-Chang Kim,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impact of 3D Print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7 ,pp.23-31, 2015.

[17] “The Ten Principle of 3D printing”, http://bigthink.com/experts-corner/the-ten-principles-of-3d-printing, 2016.03.01.

[18] DOI: https://en.wikipedia.org/wiki/Laser_cutting. 2016.05.15.

[19] Gab-Sang Ryu, “Development of Educational Model for ICT-based Convergence Exper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75-80, 2015.

[20] Seung-Soo Shin, Jung-In Kim, Jeong-Jin Youn , “Vulnerability Analysis of the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based on Digital Convergence Cur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225-234, 2015.



**이 지 원(Lee, Ji won)**

- 2007년 2월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문학사)
- 2007년 12월 : Association Business Executives(ABE), UK, Certificate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수료
- 2012년 10월 :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Sir John Cass Faculty of Art, Architecture & Design , 주얼리 디자인전공 (디자인석사)
- 2014년 2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디지털 주얼리, 디자인, 디자인경영
- E-Mail : Jiwon.lee1@idas.ac.kr

**나 건(Nah, Ken)**

- 1983년 2월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사)
- 1985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 1996년 5월 : TUFTS University 공업디자인학과 (공학박사)
- 2010년 12월 : WDC Seoul 2010 총감독
- 2015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원장
- 2009년 1월 ~ 현재 : Red Dot Design Award & Concept Award 심사위원
- 관심분야 : 디자인, 디자인경영
- E-Mail : knahidas@gmail.com